투어 번호
LKVR72PNDH

남부 및 언덕 지역 탐방 (9일)

9일 · 8박 | 운전기사 겸 가이드 동반 프라이빗 투어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이 체험 소개

이 9일간의 프라이빗 투어는 스리랑카의 남부 해안과 중부 고지대를 연결하며, 갈레의 식민지 거리에서 출발해 야생동물이 풍부한 저지대를 거쳐 누와라엘리야, 엘라, 캔디 주변의 차 재배지역을 통과한 후 콜롬보에서 마무리됩니다. 전 일정 내내 에어컨이 갖춰진 프라이빗 차량과 전담 가이드 운전사가 함께하므로, 속도와 경유지를 당신의 일정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투어 중에 갈레 포트를 탐방하고, 마두 강을 보트로 크루징하며, 남서부 해안의 거북이 부화장을 방문한 후, 내륙으로 향해 우다왈라웨 국립공원에서 지프 사파리를 즐깁니다. 고지대 구간에서는 엘라의 전망대와 나인 아처스 브릿지 주변을 산책하고, 호튼 플레인스에서 월드 엔드와 베이커스 폭포까지 등산하며, 차 공장을 방문하고, 캔디에서 하루를 보내며 왕립 식물원, 치아 사원, 캔디언 댄스 공연을 감상합니다. 투어는 콜롬보 시티 투어로 마무리되고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프라이빗 투어이므로 공용 버스나 고정된 단체 일정이 없으며, 여행객들이 가장 관심 있는 명소에서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별 여행 일정

Day 1 반다라나이케 국제공항 → 갈레

콜롬보 공항에 도착하면 Lakpura 전용 기사 겸 가이드가 마중을 나와 갈레까지 모셔다 드리며, 이어서 오후에는 시내 투어가 진행됩니다.



갈레 요새

한때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의 거점이었던 식민 시대 도시를 둘러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요새 중 하나와 박물관, 등대를 살펴보고, 네덜란드 시대의 이름이 남아 있는 자갈길을 따라 산책합니다.

Rovin Shanila · CC BY-SA 4.0

Day 2 갈레 → 갈레

남서부 해안의 마두강과 거북이 부화장을 둘러보는 갈레 출발 하루 종일 투어입니다.



마두강 보트 사파리

마두강의 맹그로브 수로를 따라 두 시간 동안 보트를 타고 이동하며, 일광욕을 즐기는 악어와 물왕도마뱀을 관찰하고, 계피 재배 섬을 방문하며, 물고기 마사지를 체험하고 물새들을 구경합니다.

SUPindia · CC BY-SA 4.0



코스고다 거북이 부화장

남서부 해안에 위치한 부화장을 방문해 스리랑카 해안에 알을 낳는 멸종위기 바다거북 다섯 종과 이들의 알을 보호하는 보존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봅니다. 새끼 거북이와 보호 중인 부상당한 거북이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Day 3 갈레 → 우다왈라와

체크아웃 후 우다왈라와로 이동하며, 저녁에는 국립공원에서 지프 사파리를 즐깁니다.



우다왈라와 국립공원

1970년대에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조성된 공원의 습지, 숲, 초원을 세 시간 동안 지프로 탐험합니다. 물새와 스리랑카 코끼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포유류, 파충류, 나비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AntanO · CC BY-SA 4.0

Day 4 우다왈라와 → 엘라 → 누와라엘리야

누와라엘리야로 향하는 길에 엘라에 들러 그 풍경과 명소들을 둘러봅니다.



엘라

차밭과 암석 지대를 지나며 리틀 아담스 피크의 전망을 감상하고, 나인 아치 다리를 건너 걸은 뒤, 루프형 선로 구조로 유명한 데모다라 기차역에서 여정을 마칩니다.

Dan arndt · CC BY-SA 4.0

Day 5 누와라엘리야 → 호튼 플레인스 → 누와라엘리야

도시락 조식을 챙겨 호튼 플레인스로 하이킹을 떠난 뒤, 저녁에는 누와라엘리야 시내와 인근 시타 엘리야를 둘러보는 투어가 이어집니다.



호튼 플레인스 국립공원

오히야에 위치한 호튼 플레인스의 고산 초원과 운무림을 하이킹하며, 월드 엔드의 전망, 베이커스 폭포의 시원한 물보라, 고유종 동물들, 그리고 이 지역의 고고학적 발견물들을 살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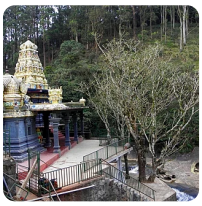
Faslan at en.wikipedia · CC BY-SA 3.0



누와라엘리야 시티 투어

영국 식민지 시절 산간 휴양 도시였던 누와라엘리야를 거닐며 오두막, 빌라, 저택들을 구경하고, 붉은 벽돌로 지어진 옛 우체국을 방문한 뒤 퀸 빅토리아 공원이나 그레고리 호수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Abdul malik77 · CC BY-SA 4.0



시타 암만 코빌

시타 엘리야 마을과 그곳의 사원을 방문합니다. 라마야나 이야기 속 시타가 감금되었던 전설과 연결된 곳으로, 이와 관련된 고대 신상과 유적을 볼 수 있습니다.

Buddhika Mawella · CC BY-SA 3.0

Day 6 누와라엘리야 → 캔디

체크아웃 후 캔디로 향하며, 도중에 차 공장 투어와 람보다 인근 폭포에 들릅니다.

차 공장과 플랜테이션

운영 중인 차 공장과 농장을 가이드와 함께 둘러보며, 1850년대 제임스 테일러가 룰레콘데라 농장에서 시작한 실론 티의 종류와 가공 과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람보다 폭포

캔디로 가는 길에 람보다에 들러 스리랑카에서 11번째로 높은 폭포인 람보다 폭포를 구경합니다.

A.Savin · FAL

Day 7 캔디 → 캔디

식물원, 불교 사원, 전통 예술과 무용을 둘러보는 캔디 및 인근 지역 당일 투어입니다.



페라데니야 왕립 식물원

19세기 초에 조성된 이 정원을 거닐며 난초, 향신료, 약용 식물을 포함한 4000종 이상의 식물을 구경하고, 캐논볼 나무와 현수교도 함께 살펴봅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불치사(佛齒寺)

부처님의 성스러운 치아 사리를 모시기 위해 16세기에 지어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방문하여, 화려한 벽화가 그려진 홀, 조각된 기둥, 금빛 불상들을 감상합니다.

A.Savin · FAL



전통 공예 투어

보석 세공, 목공예, 바틱 기법을 시연하는 공방들을 방문합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캔디안 전통 공연

불춤과 칼춤을 포함해 북소리에 맞춰 펼쳐지는 전통 캔디안 춤과 음악의 한 시간짜리 공연을 관람합니다.

Arian Zwegers · CC BY 2.0

Day 8 캔디 → 핀나웰라 → 콜롬보

캔디에서 체크아웃한 후 콜롬보로 이동해 시내 투어와 쇼핑을 즐기고, 저녁에는 숙소에 체크인합니다.



콜롬보 시티 투어

옛 등대, 옛 국회의사당, 갈 페이스 호텔, 갈 페이스 그린, 강가라마야 사원 등 수도의 역사적인 명소들을 둘러보고, 상점과 쇼핑몰, 국립박물관 주변도 함께 방문합니다.

Gihanud2001 · CC0

Day 9 콜롬보 → 반다라나이케 국제공항

아침 식사 후 체크아웃하고 공항으로 이동하여 출발 항공편을 탑니다.

포함 사항

포함

- Transport in a Private Vehicle, Fuel, Parking & Highway tolls.
- Service of English-Speaking Chauffeur Guide.

미포함

- Hotel Accommodation and Meals.
- Entrance fees to the respective sites.
- Chauffeur Guide's Accommodation.
- Expenses of personal nature.
- Visa and Related Expenses.